

도종환 “옛 도청 복원안 곧 마련”

<문화부 장관>

“광주시 건의서 바탕 방향·내용 등 지원”

문화부 방문 대책위 면담 자리서 약속

“광주를 직접 방문해 옛 전남도청의 훼손 상태를 살펴보고 복원 방안을 찾아야 했는데 취임 초기라서 미처 광주를 찾지 못해 죄송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주무부처인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문체부를 찾은 ‘옛 전남도청 보존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면담을 통해 “광주시가 준비한 건의서를 기본으로 복원 방향과 내용, 행정 지원 등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5·18 정신의 현저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 규범화’가 포함된 데 이어 실무 부서인 문체부도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적 공간’인 옛 전남도청 복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따라 옛 전남도청 복원 작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관련기사 3면>

윤장현 광주시장과 장휘국 광주시교육

감, 5·18관계자 등으로 꾸려진 대책위는 이날 문체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옛 경찰청에 전시돼있는 각종 콘텐츠를 이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일빌딩 등을 제시하는 등 옛 전남도청 원형 보존에 따른 대안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이날 대책위는 도종환 장관에게 옛 전남도청 복원과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고 도 장관은 “광주시와 대책위가 준비한 건의서를 기본으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윤장현 광주시장은 “몇 사람이 대표자격으로 왔지만, 이 자리에는 37년간의 ‘5월의 울음’이 함께 담겨 있다”며 “역사적 부끄러움이 없도록 오월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 생각하고, 5월 당사자들과 대책위의 의견, 그리고 전문가 토론,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모든 내용을 건의서에 담았

다”고 말했다.

이에 도 장관은 “광주정신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이끌어가는 민주주의 정신이다”며 “대통령께서 5·18 정신을 헌법 정신에 담겠다고 약속한 만큼, 우리도 오월 정신을 중심에 두고 현안들을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 장관은 특히 “조만간 옛 전남도청을 방문해 훼손 정도를 살펴보고 복원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광주시의 옛 전남도청 복원 요청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도 장관은 이어 “광주시민이 옛 전남도청 복원에 대해 얼마나 절실함과 절박함을 갖고 있는지 깊이 이해한다”며 “옛 전남도청 복원에 관해서는 광주시민과 전문가들이 주신 의견을 토대로 실무적인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문체부 방문에는 윤 시장과 장 교육감을 비롯해 광주시의회 이은방 의장,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정춘식 회장,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김후식 회장, 5·18구속부상자회 양희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물만난 아이들 “더위가 즐거워” 광주·전남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26일, 광주 동부소방대원들이 도심 온도를 낮추기 위해 동구 푸른길공원길 주변에서 물을 뿌리자 동네 아이들이 나와 물을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위상 높인다더니

정식직제 편입 안되고 정원 11명 그대로

광주 12개 문화시민단체

“문화수도 정상화 의지 있다”

‘광주 문화수도 조성사업’을 총괄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추진단)이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문체부 정식 직제에 편입되지 않고 소관 부서만 옮기게 됐다. 추진단의 위상강화와 문화수도 조성사업 활성화를 기대했던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들은 새정부의 방침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현행 7실로 이뤄진 문체부 조직을 4실 5국 체제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 체육국, 관광정책국 등이 신설된다. 추진단은 이번 개편된 지역문화정책관실에 편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기존 문화콘텐츠산업실 소속으로 있던 추진단은 예전과 같이 문체부 정

식 직제가 아닌 별도정원으로 운영된다. 단장 직급도 변함없이 과장급(4급)이며, 정원도 현재와 같은 11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는 그동안 추진단 위상강화를 위해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를 상대로 조직 구성과 인력 확대를 협의했으나 최종적으로 본부 직제 편입과 정원확대는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추진단의 위상강화를 위해 단장의 직급상향과 정원 확대를 촉구해온 지역의 여망과 다른 결과다. ‘국책사업’을 지역문화정책관실에서 관장하게 됐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문화도시협의회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등 12개 단체는 이날 ‘100대 국정과제, 문화체육관광부 조직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추진단을 지역문화사업 담당부서에 편제하려는 것은 문체부가 여전히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국책사업이 아닌 지역사업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

시대 선언 및 한국문화기술(CT) 연구원 설립 등 공약 대부분이 누락됐다”며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문화전당 활성화를 제외하고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정상화와 관련한 어떤 내용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 약속도 빠져,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통해 광주를 미래형 문화경제로 시로 변모시키겠다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목표도 요원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짬통더위·악취속 차량 꺼내기 비지땀 뺀조각 발견 소식 미수습자 가족 슬렁

르포 / 세월호 선내 수색 100일 목표신향 가보니

세월호가 인양된 이후 선내수색에 돌입한 지 100일을 맞은 26일 목표신향은 다시 한 번 기대감으로 슬렁이고 있었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현장을 찾은 이날 오전·오후 수색 작업에서 사람의 발목 뼈로 추정되는 뼈조각 2점이 연달아 발견됐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화물칸 수색 중 정강이뼈가 수습된 이후 다시 한 번 뼈 조각이 발견되자 그 동안 지쳐있던 미수습자 가족들도 잠시나마 힘을 내는 모습이었다.

목포신향은 이날 오전부터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등 연일 계속된 폭염이 심술을 부렸지만, 미수습자 발굴 작업만은 막지 못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세월호 수색이 장기화하면서 추모 열기는 한풀 꺾인 모습이었다.

목포신향은 드물게 찾아오는 추모객이 있을 뿐,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산했다. 지난달 30일에는 목포 신향 취재지원센터의 운영까지 종료되면서 목포신향에서 취재경쟁을 벌이던 언론사 기자들의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었

수색 장기화 추모객 줄어

“잊혀지는 게 너무 아쉬워”

다. 이날도 자원봉사자 6명, 유가족 10여명, 미수습자 가족 5명만이 현장을 지키고 있었다.

26일 목포시에 따르면 세월호가 목포 신향에 거처 된 날부터 지난 25일까지 16만4900여명의 추모객들이 목포 신향을 찾았다. 6월에는 1만3200여명이 찾아 하루 평균 400여명이 방문했지만 이달들어선 지난 25일까지 2800여명이 방문하는데 그쳤다. 한 달 새 75% 가까이 감소한 셈이다.

미수습자 가족인 권오복(63)씨는 세월호가 침몰한 2014년 4월 16일부터 실종된 동생 재근씨와 조카 혁규군이 발견되기를 기다리며 진도 팽목항과 목포 신향 등 현장을 지키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권씨는 “동생이 트럭 안에 있을 확률

이 가장 높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발버둥치다 트럭에서 나왔을 것 같다”며 “지난 24일과 이날 화물칸에서 수습된 유해가 동생인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단원고 2학년 1반 유미지양의 아버지인 해중(56)씨는 밑질모자를 꼭 눌러쓴 채 목포 신향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굳은 표정의 유씨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처음에는 많은 기대를 했는데 막상 바뀐 것은 없다”며 “같이 눈물 흘려주고 보듬어준 문 대통령을 믿지만 세월호가 잊혀지는 게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휴가철을 맞아 희생자 추모를 위해 부산에서 찾아온 강준수(53)씨는 “세월호 참사를 겪어도 안전 불감증은 여전히 듯하다”고 말했다.

현장 수색 작업자들은 연일 이어지는 짬통 더위 속에서도 수습자 발굴 작업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었다. 한 수색 작업자는 “세월호 내부에 송풍기 등을 설치하고 마스크를 써도 악취가 심해 숨쉬기조차 힘들지만, 미수습자 수습을 위해 참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김현영기자 young@



피부의 균형을 바로잡아 찬란하게 빛나는 궁극의 윤기를 얻다

설화수 윤조에센스

속부터 우러나오는 건강한 피부 윤기. 치유침 없는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생기, 탄력, 투명, 자생력, 영양의 균형을 바로잡아주는 설화수 윤조에센스

삼천 가지 귀한 원료에서 찾은 다섯 가지 성분의 자율탄™이 피부 본연의 윤기를 찾아주고 피부의 부족한 기운을 채워 가장 이상적인 피부균형을 완성합니다. 매일 아침, 찬란하게 빛나는 윤기피부를 만나보세요

Sulwhasoo

• 설화수 플래그십스토어 및 전국 백화점, 아모레 키오스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플래그십스토어: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료 포함)